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9. 1 통권 제49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1
1999
제49호

통 권 제49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1월 11일
편집 및 발행인 김종중
편집위원 김정균 유병규
김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순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정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편집자의 글

남북 경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3

포커스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1999년 남북 관계 전망 • 김성한4

특 집

새정부 출범 1 년의 대북 정책 평가

대북 정책의 반성과 과제 • 이철기10

정경 분리 원칙 하에서의 경험 성과와 향후 과제 • 이찬도16

사회 · 문화 교류 분야에서의 정부 노력 • 주강현22

경협동향

1999년은 북한 경제 희생의 마지막 기회 • 조은호28

논 단

금강산을 활용한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 • 지일현42

금강산 관광이 민족 화해에 미치는 영향 • 이종석55

북한의 환경 오염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 • 홍순직72

북한경제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주민들의 영양 상태 • 장남수87

독자기고

국제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과 북한의 개방 및 변화 • 홍양호96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남북 경협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19

98년은 남북 경협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연 한 해였다.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착수, 서해 안공단 건설 합의 등은 그야말로 남북경협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업적들이라 할 수 있다. 올해엔 남북간에 협약을 맺은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남북 경협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새해에도 남북 경협 과정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돌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금년 남북 경협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동안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어온 '금강리 지하 핵시설 사찰 문제'가 될 것 같다. 만일 사찰 여부를 둘러싸고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이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 경협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년호의 포커스에서는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1999년 남북 관계 전망'을 집중 조명하였다. 특집에서는 신정부가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제반 대북 정책을 평가해보고 향후 보완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로 신정부 출범 이후 실현된 대북 기본 정책 방향, 경협 성과,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다루었다. 특집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들이 정부나 기업들이 남북 경협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논단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 논문들을 실었다. 지난해에는 국내인들만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하여, 금강산이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지로 부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산을 활용한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금강산 관광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실현된 대규모 남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이 민족 화해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환경 오염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은 오염없는 금강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지난 한 해 남북 경협 사업은 잠수함 사건, 북한 핵의혹 등으로 순탄하게만 전개되어온 것은 아니었다. 올해에도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할 것이다. 하지만, 정경 분리 원칙 고수와 주변국과의 협조 아래 남북 경협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나가는 것만이, 남북 관계 개선의 첩경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가일층 경주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월
편집자